

인도의 어패럴 산업 - 세계 제 2위의 섬유·어패럴 생산국

인도는 세계 제 2위의 섬유·어패럴 생산국이며 특히 어패럴은 풍부하고 숙련된 노동력과 면, 합섬, 레이온, 실크 등의 다양한 소재들을 배경으로 매년 수출을 11 ~ 12% 늘려왔다. 인도는 이제까지 구미(歐美)를 중심으로 수출해 왔는데, 셋째 수출 시장으로 일본을 지목하고 있다.

어패럴은 인도 총 수출의 8%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다. 인도의 어패럴 수출은 세계 제 5위에 랭크되어 있고 세계 세어(share)는 3.3%이다. 어패럴 수출의 약 60%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구미(歐美) 수출이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2008년부터 어려워지고 있어 그 대응책으로서 일본, 중남미 등의 시장으로 수출하는 것을 중요한 방침으로 내놓고 있다.

회원 약 8천개사(社)를 거느리고 있는 어패럴 수출 진흥 협회(Apparel 輸出 振興 協會 : AEPC)는 먼저 인도의 어패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일본 시장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일본의 마케팅(marketing)도 배우고 인도의 독자적인 니치 마켓(niche market)을 만들 방침이다. 앞으로 1년간은 일본의 전시회에 적극 참가함을 비롯해 일본 디자이너들을 인도로 초청하는 등 교류를 늘려나갈 것이다.

AEPC는 “일본 시장에 참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최근 수개월간에 일본 시장이나 전시회를 시찰할 목적으로 2개 팀을 이미 파견하였다. 일본으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며 인도의 이미지를 크게 바꾸겠다.”고 의욕적으로 말하였다.

일본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 인도로부터 연간(年間) 어패럴 수입액은 162억 엔으로 2007년과 비교하면 1% 줄었다. 그러나 수량은 2007년과 비교하면 5% 증가하여 2,403만 점으로 늘었다.

세계적인 경기 후퇴로 인도의 어패럴 수출은 어려운 상태이다. 구미 금융 위기는 인도에도 직접 타격을 줘 일시적 해고(lay-off)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AEPC는 ‘세금 되돌려

주는 비율'을 올리고, 연구 개발 원조(研究 開發 援助), 5년간의 소득세 면제 등을 정부에 건의해 왔는데 정부가 발표한 경기 자극책은 구체성이 부족하였다.

업계 소식통에 의하면 “섬유 어패럴 사업에서는 과거 5개월간 약 70만 명이 실직하였으며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2009년 3월까지 다시 50만 명이 실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섬유 어패럴 산업의 직접 고용은 3,300만 명이며 간접 고용이 5,500만 명이고, 이 중에 어패럴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은 700만 명이며 이중에서 390만 명이 수출용 생산에서 일하고 있었다.

2007년 4월 ~ 2008년 3월간의 어패럴 수출은 순조롭게 돌아가 97억 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2008/2009년의 수출 목표는 116억 달러였는데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수출은 88억 달러에서 멈췄다. 이는 목표와 비교하면 24% 미달이며 2008년 실적과 비교해도 9%가 줄었다.

얼마 전에 델리(Delhi)에서 열린 인도 국제 가먼트 페어(Indo 國際 garment fair)에서 주최자는 이 행사를 상당히 어렵게 예상하였으나, 첫날부터 예상을 웃도는 많은 관람객으로 한숨을 돌렸다고 한다. 285개사에서 2009년 추동절의 부인·신사복 등의 컬렉션을 출품하여 전시하였다. 사용된 소재는 면, 합섬, 레이온, 실크 등으로 다채로웠다. 또한 오가닉 코튼, 오가닉 실크도 처음으로 제안되어 주목을 받는 등 대일 수출(對日 輸出)을 강하게 의식한 전시 내용으로 진실성의 정도를 엿볼 수 있었다.♣